

삶의 힌트

이츠키 히로유키 (일본 소설가)

(4) 다르다

# ‘나’는 유일한 존재... 좋아하는 일 하며 사세요

저는 옛날부터 저 자신이 의지가 약하다는 사실에 상당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릴 적 가정 통신란에는 종종 '주의 산만, 의지박약한 경향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지가 약한 인간이라고 줄곧 믿어왔습니다. 계획한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 이른바 자심삼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좀처럼 오래 지속한다는 건 제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놀랍게도 묘하게 오래 지속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뜬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건강을 바라다기보다는 오히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주 듭니다. 병에 걸리는 게 싫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는 병원을 너무 싫어할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떻게든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이상 가능하면 기분 좋게 살고 싶고, 컨디션이 좋은 몸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걸 비단 나이 때문에 든 생각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형편없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의 세계에서 만큼은 기분 좋게 살고 싶다고 줄곧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뭘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깅, 태극권, 요가, 간단한 체조나 심호흡, 그 밖에 여러 가지 건강법을 시도해보았지만, 그 무엇도 사흘 이상을 계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옛날에 자주 했던 뜬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교사로 평생을 보냈는데, 젊은 시절부터 무릎 바깥쪽 근처에 스스로 뜬을 땀습니다. 여름 저녁나절이면, 아버지는 유키타 차림으로 뒷마루에 앉아 마른 다리를 드러낸 채 한 손에 향을 들고, 삼리혈에 열심히 뜬을 뜨곤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뜬없이 뜬을 뜬다고 싫다는 생각이 들어 약국에서 파는 자가 뜬 세트를 사 왔습니다. 설명서에 나온 그림을 보며 뜬자리를 잡고, 몇 군데에 뜬을 뜬는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3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이제껏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뜬 뜬을 즐겼습니다. 여행할 때도 반드시 챙겨 갑니다. 어쩌사 이것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니, 이 뜬이라는 것이 저와 잘 맞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럽다가 아팠다면 계속할 수 없었겠죠. 원래 불을 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자극적인 일입니다. 뜬도 일종의 불장난 같은 것이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여야 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연기를 피우며 조금씩 타오르는 쑥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곤 합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다. 그럴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속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바로 잘하는 것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데, 재능이라는 것에도 '좋아한다'는 감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좋아하는 것이라면 노력이나 수업 같은 훈련 없이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식사도 잊고 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인연이 없던 걸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좋아했지만, 빠져들지 못했던 건 그것과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인 것. 힘이 세거나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간의 유형 중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적으로 시켜도 결국은 내내지는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의지라는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른 얼굴과 다른 체격, 다른 성격, 다른 태어납니다. 기질도 용모도 동작도 전부 다르기 마련이죠. 지구 상의 수십억 명의 인간 중에 완전히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아찔하고 불가사의한,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중에는 노력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힘들거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지가 약하다든가 강하다는 것은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는 것, 힘이 세거나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간의 유형 중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워하는 일은 오래갑니다. 좋아하는 일도 오래 갑니다. 기분 좋은 일 역시 오래갑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강제해도 결국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최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태어난 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놀랄 만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열도에 살고 있는 1억 2천만명의 사람들 사이에 제 아무리 혈육이라고 한들,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고 한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외모가 달랐거나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기원전 400~500년 전의 청년이었던 고타마 싯다르타, 지금은 석가모니로 불리는 불교 창시자의 에피소드에 관해 의문을 품으며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설로,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제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이름난 학자들의 해설을 읽어도 좀처럼 와 닿지 않았습니다. 웬지 그 말에는



미국 미술가인 키스 해링(1958~1990)의 작품

## 단 한 사람으로 한 번 뿐인 인생받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진귀한 선물

다 같이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단 한사람 밖에 없는 인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손을 잡은 것

인간이 살 날은 정해져 있기에 스스로 '유아독존' 삶 살아야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존엄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겠지, 라고 줄곧 생각했습니다. 불교라는 커다란 사상의 핵심을 통과하는 화두가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수께끼 풀이를 해왔는데, 최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나만이 존엄하다는가 오로지 나 한 사람만이 위대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르다. 단 한 사람도 같은 존재는 없다.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위대하다든가 위대하지 않다든가, 뛰어나다든가 뛰어나지 않다든가, 아름답다든가 아름답지 않다든가, 건강하다든가 건강하지 않다든가, 그런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타인과 다른, 오로지 한 번뿐인 인생이 주어지며, 단

한 사람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므로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것이다. 석가모니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는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개인은 지구상의 60억에 달하는 인류의 한 명에 불과하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개개인 모두가 '나', 단 한 사람의 인간인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도 다르고 형제와도 다릅니다. 단 한 사람의 인간,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단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존재,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진귀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둘도 없다는 것, 두 번 다시 없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합니다. 대단히 귀중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얼음이 녹듯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깨의 짐이 상당히 가벼워지는 듯 편해집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약속에 따라, 혹은 그룹이나 가족, 조직의 상식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겠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다양한 형태로 제재가 가해지거나 제한, 또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삶은 그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필요 없는 삶의 방식, 즉 무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후의 룰로 강제되는 것, 그 외에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는 부분까지도 주위와 똑같이, 주위의 안색을 살피면서, 모두와 똑같이 행동해온 건 아닐까요.

한때 '빨간불에 다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시 빨간불이 켜졌

을 때 다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파란불에 건너가면 안전하겠지요. 그러나 자기 책임 하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위험한 빨간불을 혼자 건너가는 것도 그 인간에게 허락된 게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주위와 협조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주 규제(自主規制)의 한도를 넘어 모두와 똑같이 하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저 모두에게 맞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두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일본인의 미덕이긴 하지만, 그 때문에 '유아독존'이라는 의미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인간, 단 한 번만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끼리 손을 잡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손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혹은 입을 책, 들을 음악,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존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롭게 '유아독존' 페이스를 유지하며 살면 됩니다. 아주 쉬운 일이지요, 저는 그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다른 이와는 전혀 다른, 단 한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이든 청년이든,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할머님 중년을 지나 고령기에 접어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남은 하루하루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다다르자마자 주위를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멋대로 하면 안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 나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제하려는 무의식의 심리가 작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의 길이 있다. 그리고 평생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유아독존'이라는 삶의 태도를 이 사회가 허용하는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발휘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생각의 10분의 1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닐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세상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정리=나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이츠키 히로유키가 쓴 <삶의 힌트>(지식유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양국)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양국)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룸바이 - 엘로라 / 아진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카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야부나트) - 인천

###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양국)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야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이누라파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가리야(시가리야성채) - 플룬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리엘리아 - 콜롬보 - 인천

\*장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팀 포함
-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 8대 佛敎聖地 지역 안내 ▶

- 1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2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3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4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 5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6 쿠시나카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7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름뿔이 있는 곳.
- 8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김영근 | 사업자등록번호: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